환경신기술 한자리에…, 제25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3) 성황리에 열려…

< 편집부 >

국내 최대 규모 환경비즈니스 및 마케팅의 장인 『제25회 국제환경기술전(International Exhibition on Environmental Technologies 2003 : ENVEX2003)』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태평양홀 에서 총 17개국 245개(국내 : 184, 국외 : 61)의 환경관련업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려 지난 6월 20일 막을 내렸다.

국제환경기술전(ENVEX)은 정부의 「환경산업 육성」 취지 하에 선진 환경기술의 국내 도입은 물론 국내 우수 신기술의 해외 진출에 크게 기여해 온 국내의 대표적인 환경전시회 이며 환경보전협회(회장 박용성)에서 매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하천수 및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수 공급이 가능한 이동형 정수장치, 수세용 물이 전혀 필요없는 소변기 등 주요 기술 뿐 만 아니라 환경부 및 건교부의 인증을 받은 환경신기술들도 소개되었다. 또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미국대사관, 호주대사관, 영국대사관, 캐나다대사관, 이스라엘대사관에서는 각 국의 환경산업 현황을 소개하였다.

아이템별로 주요관을 구분하여(수질관, 대기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관, 측정 및 분석기관, 친환경상품관, 환경벤쳐기업들의 환경벤쳐관, 한국환경기술진흥관, 국립환경연구원의 환경신기술창업보육센터관, 유럽관, 미국관, 캐나다관 등)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환경부 장관, 환경부 차관, 환경부 공보관, 상하수도국장, 정책국장,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환경보전협회 부회장, 국립환경연구원 원장, 경인지방환경청장,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 영국 공동환경시장단 부단장,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환경위원회 회장, 주한독일부대사, 주한호주대사관 공사참사관,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관,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상무관등이 전시장을 방문하여 국내·외의 신기술 관람과 함께 참가업체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학계, 업계, 연구계 등 우리나

라 환경관련 분야 종사자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개발도상국 환경공무원(20여명), 헝가리, 독일 등의 해외바이어 등 약 3만 8천여명이 전시장을 참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전시회의 참가국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총 17개국 중 국내업체는 184개, 외국업체는 61개로 작년 전시회와 비교하여 볼 때 총 참가업체수는 다소 줄었으나 참가국 및 외국참가업체는 늘어나 해외에서의 참가 관심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대륙별 참가를 보면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일본의 출품율이 높았고, 북미에서는 미국,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또한 출품물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수질분야가 43.3%로 가장 많고, 대기분야가 11.8%, 측정/분석기분야 15.5%, 폐기물분야 7%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또한 국내 참가업체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참가업체들의 환경기술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선진국들

의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약 20% 정도로 자체개발의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상태이며, 향후 정부 및 관련기관의 심도 깊은 기술진단을 통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설하여 선진 외국의 기술에 뒤지지 않도록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된다.

국내 · 외 환경동향 및 정보자료의 습득은 △인터넷 40% △환경관련 잡지 및 신문 30% △전시회참관 10%등의 순으로 인터넷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으로 향후 전시회와 인터넷을 활용한 홍

<표-1> 국가별 참가업체수

참가국 / 총계	아시아				유럽									북미		기타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폴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핀란드	EU	미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245	184	9	3	1	13	2	6	1	2	2	1	1	1	11	1	5	2

<표-2> 분야별 출품현황

출품 분야 / 업체수	수질분야		대기분야		폐기물분야		소음 진동 분야	환경 복원	측정/ 분석기 분야	음식물 처리 분야	환경 약품	환경 서적	환경 컨설팅	친환경 상품	기타
	처리 시스템	장비 및 부품	처리 시스템	장비 및 부품	처리 시스템	재활용									
245	36	70	15	14	9	8	2	4	38	11	3	5	2	11	17

보 개발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과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주요 나라가 일본, 독일, 미국 순으로 나타나 일본, 북미 및 유럽 등에서 아시아를 기점으로 환경시장의 발판을 넓혀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로 동아시아에서의 기술발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전시기간 중 참가업체들의 상담 건수나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약 3,000여건(72업체)의 전시장내에서의 실질적 상담과 300억원(작년 130억원)의 현장 계약이 이루어져 올해 약 500억원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어 이번 전시회가 참가업체들의 신제품 홍보 및 제품판매에 커다란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전시회에 출품할 의사가 있는 업체가 71.6%이고 검토중인 업체가 25.6%로 나타나 전시회가 실질적인 구매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 행사기간중 선진국의 환경기술개발동향을 파악하고 국내기업의 환경기술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환경기술세미나』,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을 주제로 한 『환경기술개발사업성과세미나』와 『영국의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장 통합 관리 방안과 신기술 소개』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어 시너지 효과를 크게 증대시켰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내적으로는 환경기술의 경쟁력 촉진 및 기술개발자와 수요자간의 정보교류로 환경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외적으로는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환경이 조성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참가업체 및 관람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북핵문제, 사스, 이라크전쟁, 국내경기의 불황 등 비슷한 시기의 타 전시회가 축소 내지는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규모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전시회를 통한 홍보에 많은 기업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내년 제26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4 : 2004. 6. 14 17, 코엑스 태평양홀)은 한 차원 성숙된 모습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협회 임직원은 더욱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국제환경기술전시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envex.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